

『일판 사랑판』에 부쳐

안병무

나는 이 책의 저자를 어떻게 부를지 망설였습니다. 오랜 습성으로 쉽게 허병섭 목사라고 입에서 튀어 나오나 그는 목사가 아닙니다. 지난 88년 8월에 목사 사직원을 한국기독교장로회 서울노회에 제출한 후, 여러 동료나 선배들의 만류를 끝끝내 거부하고 다음해 10월 마침내 그 사직서가 수리됐으니 목사는 아닙니다. 그의 현 직업은 노동자입니다. 그가 목회하던 동월주민들과 더불어 건축장에 돌아다니면서 벽돌이나 이진 시멘트를 지어 나르는 막노동꾼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동료들에게서 미장이 전문가의 자격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렇다고 그를 허노동자라고 부르는 것도 어색합니다.

그는 사실상 50평생에 지냈던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신학대학을 나오고 목회자 시험에 응시해서 얻은 천직이라고 생각했던 목사직도 버렸고, 대학원에 진학해서 배운 기독교교육학을 바탕으로 민중교육연구소를 설치하고 민중의 교회, 민주적 교회, 한국인의 교회를 모색하던 일도 다 버렸습니다. 일찍이 결혼해 가정을 이루어 아내와 두 자식을 두었으나 이 가정마저 버린 것입니다. 남은 것은 겹혀뿐이고, 가난한 자들에게 자리를 주기 위해 자신의 마음도 다 비워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를 허공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의 성을 따르면 한문으로 許空이 되겠으나 그의 행태를 보아서는 虛空이 알맞습니다. 김재준 목사는 그 호를 송창근 목사가 長空이라고 지어주었는데, 이 호에는 그래도 길長이라는 적극적인 글자 하나가 있지만 그

에게는 글자 그대로 텅빈 虛空이라는 호명을 붙이는 셈입니다.

그는 대학원을 마친 다음해인 '70년부터 목회로 나섰습니다. 바로 그 해가 전태일이라는 젊은 노동자가 분신자살하여 새로 출발하는 한국 산업화의 현실을 폭로한 해입니다. 여기에 충격을 받아 한국 교회의 일부가 음지에서 신음하는 민중에게 눈을 떴는데 그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 수도권 특수지역 선교위원회입니다. 허공이 바로 이 일에 뛰어든 것은 너무도 당연하고 그다운 행로(行路)입니다. 이 길은 그에게 돌아킬 수 없는 길, 되돌아 올 수 없는 다리가 된 것입니다. 그는 그 길로 일로매진해서 계속 깊이 몰입해 들어갔습니다.

마침내 그는 '76년 12월에 달동네로 유명한 월곡동에 자신의 뿌리를 내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고 활동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나 그는 민중의 고난에 직접 참여하고 그들과 살을 섞고 싶었던 것입니다. 거기서 그는 교회의 형태를 가지고 활동했으나 그것을 바로 이 달동네 주민들의 만남의 장으로 활용했습니다. 주민들의 판잣집과 차이가 없는 판잣집 교회당을 세웠습니다. 그는 목사라는 직을 가졌기에 예배를 주도하고 설교를 해왔으나 이미 자신을 한 민중으로 둔갑시키는 데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그것은 거기서 오는 그 민중들의 고통을 들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대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그의 삶의 모습이 집권자들에게 위협하게 보여 감옥을 들락거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그의 신념은 심화될 따름이었습니다. '76년에 그의 학교 선생들을 포함한 여러 선배들이 투옥됐습니다. 그때 그는 “요한이 잡혔다는 말을 예수께서 들으시고 갈릴래아로 떠나가셨습니다”로 시작되는 마태오복음 4장 12-17절을 본문으로 설교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가 그들의 뒤를 따라 그들과 같은 운명으로 갈 것을 마음으로 다짐한 구체적 의지 표시였습니다. 정보부의 감시망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리고 정말 민중의 삶을 몸으로 익히기 위해 그는 남이 보면 정신병자라도 된 듯한 엉뚱한 짓을

곧잘 했습니다. 포장마차도 해 보고 겨울에 군고구마도 팔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법망에서 풀리자 약간 느슨한 틈을 타서 젊은 증견목사들과 더불어 민주화 운동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차 이런 일 저런 일들이 그의 어깨에 짊어지우게 되고 빈감투들이 씌워지기도 했습니다. 나는 그것이 그에게 어울리지 않고 격에 맞지 않아 보여서 그에게 충고한 일도 있습니다. 허공은 허공의 길로 가라고.

그는 민중을 위하고 민주주의만을 위해 싸운 것은 아닙니다. 동월교회를 세우고 그의 정력을 쏟은 것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교가 한국적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데 온갖 실험을 기울여 왔던 것입니다. 예배시간에 한국의 창(唱)을 동원하여 시편 등을 읽는 곡으로 삼아 보기도 하고, 한국적 가락으로 찬송을 부르려고 하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았으며, 어떤 판화가의 힘을 빌어 판잣집 교회당 벽 전체에 오색으로 민중적인 그림으로 채워 무심코 그 교회에 들어선 사람에게 무당집에라도 오지 않았나 하는 착각을 일으키게도 했습니다. 아무리 같은 하느님을 믿고 같은 그리스도를 믿어도 우리는 어디까지나 한국 민족으로서 한국의 정서와 우리끼리 통하는 기(氣)를 기로써 그것을 표현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하는 일이었습니다.

민중신학을 한다면서 민중과 직접 호흡할 상황에 있지 못한 나는 그가 가끔씩 나를 찾아주는 것이 그렇게 반가웠고, 그와의 대화는 나에게 소중했던 것입니다. 나는 그에게서 민중을 배우고 그에게서 민중의 냄새를 맡고 숨소리를 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쉬지 않고 글을 써서 민중을 증언해 왔는데, 그 증언이 한 책이 되어 세상에 빛을 보게 했습니다.

나는 그의 삶이 부럽기만 했는데 그 자신은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 공허한 구석이 남아 있음을 주저없이 토로했습니다. 그중에 무엇보다도 목사라는 직함이나 기능이 그의 삶과 전혀 일치되지 않은 데 대한 고민이 컸습니다. 민중으로서의 삶과 목사라는 고정관념 사이의 괴리를 매꿀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고민의 과정에서 찾아 온 그는 너무도 엉뚱한 생각을 몰아 왔습니다. 그것은 그가 이제 올 지방자치체가 실시되면 ‘동장’으로 출마할 의사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내 아내도 자리를 함께 했는데 그의 ‘엉뚱한’ 생각에 처음에는 아연했었으나 그것이 정말 민중과 더불어 살 뿐만 아니라 민중의 권익을 지켜주며 동시에 시민사회의 역사가 짧은 탓에 관료의 위상이 정립되지 않은 이 땅에서 정도를 보여주는 엄청난 효과를 거두는 발상이라고 생각되어 적극적으로 그의 뜻에 찬동한 일도 있습니다.

마침내 그는 목사직을 사직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결의를 들은 나는 글자 그대로 어안이 빙빙했을 따름입니다. 이미 도저히 그를 따라갈 수가 없는 상태인 내가 무슨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후 노동자로 둔갑하여 매일같이 ‘시다’로서 무거운 짐을 지고 오르내린다는 사실만이 단순히 그의 나이로 보아서 몹시 마음에 걸릴 따름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가 월곡동에 날쌔노동자들과 더불어 살며, 더불어 사는 길을 모색해서 생각해 내고 실천에 옮긴 운동이 바로 ‘두레’라는 조직입니다. 민중의 운명은 자기 스스로 개척하고 해결해야 하며, 할 수 있다는 실험에 들어선 것입니다.

이 책에 실린 글들은 바로 그 날쌔노동자들과 더불어 이 운동을 실천에 옮기는 과정의 얘기를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이것이 『살림』지에 연재될 때 나는 『살림』지를 받을 때마다 먼저 그의 생활기부터 읽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한 사람의 삶 자체를 느끼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많이 팔아 먹는 민중과 더불어 호흡하는 벽찬 감격 때문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솔직한 사실 그대로인데다가 그의 문장력이 뛰어나다는 것에도 매료됐습니다.

이 책이 세상에 나와 특히 지성적이고 정신적인 생활을 한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읽음으로 그들의 허를 찌르고 우리 사회의 우상 같은 허상들을 부숴버리고, 우리의 시각이 아래로부터 위를 보는 큰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할 따름입니다.